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타무즈월 28 일 (서기 2025 년 7 월 24 일)

토라 문: 마토티 (Mattot)

주제: 신성한 의식의 더럽힘

민수기 31 장 21 절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토라의 규레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화를 냈습니다. 분노의 영으로 인한 나머지, 그는 실수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고 구전하는 고서는 기록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조리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면, 그 기구들이 흡수했던 여호와와 선택받은 자녀들이 먹지 말도록 금지된 부정한 음식과 그 기구들이 이방인 소유였다는 점에 연관한 부정함까지 함께 정결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잘 제사장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선명히 전했습니다:

“이것,” (곧 모세를 통하여 방금 너희에게 검토해 준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정결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레니, 너희는 그가 말한 대로 준행하여야 하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의식에 있어서 부정 (투마, tumah)” 한 것과, ”조리기구 안에 흡수된 금지된 음식레“에 대한 근본적 차이점을 검토해봅시다.

이 두가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a) 금지된 음식은 실제로 조리 기구의 벽 안쪽까지 스며든 물체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a)의 경우, 금지된 음식을 용기 안에 담아 그 조리 기구가 흡수 했을 경우, 그 음식물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식기를- 끓는 물에 담그거나, 하얗게 달궈질 때까지 불에 달구는 방식—으로 정결케 합니다. (b) 반면에, 신성한 의식에 대한 부정함은 기구의 외부에 머무르며, 이는 영적인 상태말합니다. 두번째 (b)의 경우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크베 (정결규례)에서와 같이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 측면에서의 부정함은 음식이 닿은 표면에만 머무르며, 기구의 내적 재질에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대부분 물리적 감각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조리 용기 안에 스며든 금지 음식물을 제거하는 정화 과정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의식적인 영역에서 부정함은 단순히 정결례식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느 만큼 양의 물에 용기를 담그는 것만으로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성세계에 기반하는 이성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일반적인 “의식적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규례 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입니다. 시체와 접촉 되었을때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 곧 특별히 준비된 혼합물 몇 방울을 사람이나 기구의 외면에 뿌리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방식보다 더욱 “영적”이며, 사람의 이성적인 논리로 예측하기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 방식 입니다.

A Daily Bread

이러한 점이 모세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복합물의 능력에 대해 오해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모세는 왕, 즉 여호와 엘로힘의 종으로써 샤마임(하늘들)의 시각, 즉 엘로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례의 복합물의 힘이 사람이나 용기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는 그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엘르아잘은 제사장으로써 여왕 즉, 백성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인간의 시각, 즉 현실적인 지평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간단히 정리된 전반적인 외적 변화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을 방산하는 토라에 기록하신 존귀하신 대표적인 두 분을 통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슈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으려 보내심 받은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를 믿음으로 구원 받음과,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상응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결실을 맺어 나감을 다시 상기합니다. 각 개인은 그 내면을 면밀히 정검하고, 그 심중까지 섬세히 들여다보며”스스로를“ 정직히 다듬고 다루었을때에, 여호와 찌온의 첫 열매들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경지까지 도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 10:10-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 2:20-24)